

젊은이 페이지

- 대학부 -

일할 소그름을 소개합니다

- 둘 배 개

매주 토요일 저녁 고아원 방문 사역

(취재 / 2학년 박교상)

매주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사육어 뒤편 후방통에 위치한 '헤실원'이란 고아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 바로 대학부의 둘째배개팀이다. 이들은 4학년 이상의 고학년이 7명 정도 되고, 2학년과 3학년은 12명, 그리고 아직 초반이라 유동적인 1학년 신입생들은 11명 정도 된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성경공부와 학교공부를 가르쳐 주며 여름엔 성경학교를, 겨울엔 사역비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을 연다.

토요일에 시간을 내야 하는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보통의 아이들이라는 조금 다른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힘들어 때가 있으나 일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한다.

이들이 이 아름다운 사역을 때를 따라, 꾸준히 감당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 젊은이의 생각 •

고아들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대학부 5학년 김 유 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고아들과 과부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사실 고아원을 매주 한바퀴 다니다보면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시적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어도 어느덧 심연 이상을 넘겨 다니게 된 사육어 부근의 헤실원이라는 고아원.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역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했던 자신들을 곧 발견할 수 있었다. 헤실원이 고아원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부모님이 두 분 다 안계신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때문이다. 이혼으로 인해 버림당한 아이에서부터 경제사정으로 버림받게 된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기도로 그 언덕은 우리에게 금방 낯익은 언덕이 될 수 있었고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며 선배들이 해왔던 것 이상으로 헤실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

그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아이들에게도 동일하였다. 아니 그보다 더한지도 모르겠다. 아니 더했다. 오히려 매주 헤실원을 방문하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이상 어찌 더 큰 은혜를 바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참 달랐다. 아이들이 제

지른 범죄와 비행, 그리고 가솔. 그렇다. 참 나쁜 길이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겠지만 지금의 나와 상황을 바꿀 생각해 보자. 과연 내가 어쩔 수 없이 고아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주 다니는 교회에서 오는 젊은 선생님들을 얼마나 신뢰할 것이며, 또 얼마나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달랐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느끼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은총인 것이다.

고아원은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도움과 관심의 대부분은 사회 봉사들을 한다는 흔적만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되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바라보며 조용히 귀기울여본다. 과연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학번 게시판

엘리베이터를 타고 선교관 지하 2층에 내려 벽면을 바라보면 5개의 예쁜 학년별 게시판을 볼 수 있습니다.

동간지, 선후배간의 사이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편지글들과 그림, 학년 주소록 및 군 지체 소속까지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의 실천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는지요.

■ 아내와 함께 이 길을 - 갓 결혼한 교역자 두 분의 이야기

위엿것을 생각하며

송원석
(전도사, 청년1부 부지도)

성경에 나타난 첫번째 결혼은, 타락하기 전의 남녀, 그것도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순결한 남녀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돕는 배필로 문화 명명을 직접 받기도 하였다(창 1:28). 그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섭리하시고 관여하시는 가운데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나타내신다.

우리 가족 모두가 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 나는 아내를 만났다. 신대학원에 입학하여 사역을 위한 구제적인 준비를 시작한 바로 그때였다. 만남을 계속할수록 성경 속의 아름다운 결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아내 역시 그 가족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할 사역자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던 중이었다. 기도 가운데 만났고, 기도 가운데 교제한 우리는 하나님에 줄거이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했다.

하나님께서 결혼 직후에 '위엿것을 생각하라'(골 3:2)는 말씀을 주셨다. 성도의 생활 원리로 생각되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묵상하던 중 깨닫게 된 나의 말씀이었다. 늘 부족하고, 하나님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었던 평생을 살아온 아내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자는 것이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자'는 약속을 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역자 부부로서 말씀 선포와 구제, 선교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항상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함께 부른다. 흠이 많고 약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일찍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언젠가 기다리며 살자는 뜻이다.

목회 사역도 결혼 생활도 이제 첫 시작에 있다. 목회자로서 첫 사역은 청년1부에서 청년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것으로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배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을 허락하시어 부족함을 채우며 배워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사역과 가정을 위해 아내와 함께 하는 기도 시간이 큰 힘과 격려가 된다. 결국 목회는 아내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 한 걸음 한 걸음(One step is enough!)을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결혼 생활과 목회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것이 돕는 배필로 서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목회 사역과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라, 견음, 오래 참음, 용서를 소유하기를 간구한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어 이 모든 것을 우리 부부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한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쁨

박도철
(강도사, 중동부 지도, 출판국 부지도)

나는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된

새신랑입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그 바쁜 사역과 학업 중에도 식사 준비, 시장 보는 것, 빨래하는 것 등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올 때 아내에게 잡다한 가사일을 맡기다던 나는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가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다. 내가 아내에게 건넨 큰 짐판만 나는 아내의 짐을 받아 봐야 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낼 때보다 일과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결혼이란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으로 목회 사역이 쉬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통하여 얻어지는 새로운 경험들은 나의 사역을 빛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혼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이라는 것은 짐을 덜어 더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로서는 결코 돌릴 수 없는 영광을 둘이 함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당당한 편함은 결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사역과 결혼 생활은 두 개의 독립된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가정에서 섬기워진 영성은 목회 사역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뼈 속의 뼈와 살 속의 살인 귀한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15주가 되어가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목회 사역을 풍성하게 해주신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려드립니다.



◎ 물매들 ◎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서

김 천 채
(장로, 영이교육부장)

요즈음 우리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는 교회 모습과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의도된 계획이나 행사가 없이 지난해 어느 날, 새벽기도가 생각지도 못하던 분량으로 늘어난 것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불회 이곳저곳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적 시작이나 찬송을 대하는 우리 내면의 모습도 분명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른 예배, 바른 찬양, 바른 헌금을 언젠들 강조하지 않던 때가 있었을까마는, 일출에만 머물던 그 당연하고 평범한 말이 언제부터인가 새롭고도 신선한 충격으로 우리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어렵다고 여겼던 젊은이들의 5부예배는 날로 분당을 가득히 메워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 앞에 아름답게 드나들며 보며 오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바르셨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되고 찬송을 찬송으로 불러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이 날로 우리 속에 새겨워졌습니다.

이제는 참과 거짓, 그리고 교회 안이 개척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밝히 깨달으며,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 우리들이 오열되어가는 교회와 나 자신을 세상 풍조로 채워져서 넘기던 우리의 불신앙을 깨우쳐 주호의 타협이나 인정의 지이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치료하며 교회를 성결케 하시는 주

님 앞에 마음 같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시다. 실로 세상 그 어떠한 자를 구교회 안에 섞어 보려는 사단의 그 집요한 간교를 명백히 깨닫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변화하고 또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 앞에서 정작 변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 자신을 봅니다. 오직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아니한 이 육신을 끌내고 십자가를 통하여 명예와 자존심에 묶인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들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에 사랑을 다하여 성도가 성도를 귀히 알고 교역자나 교역자를 존중하 여 주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하여 부활받은 성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한 정지기로서 몸되신 교회의 출성된 지체가 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와 함께 세우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하실 계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이여 가기를 기도합니다.

※ 청년2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

백 명 자
(청년2부)

작년 말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던 청년2부·30대 신앙공동체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고 있다. 그 바람은 겨울수련회를 도하고 드디어 12월 19-20일 양일간 배다나홀에서 열린 겨울수련회는 '돌로스 중창단'의 찬양으로 막이 올랐고, 둘째날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림으로써 우리들 가슴은 잔치 분위기로 한껏 불꽃이 뜨고 있는 한해, 그 자체였다. 첫째날 밤은 찬양의 은혜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왔으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둘째날 더 많은 회원들이 모이 주셨고 21:45를 중심으로 한 전례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이루셨다. 우리는 민지라는 한 회원의 은혜로 강강해져야 하고 그러할 때 우리들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인 자로 예수님과 함께 즐거이 고난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셨다.

특공부대에서 훈련생들이 특수훈련을 받을 때,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들과 함께 특수훈련을 받았으며 비행기가 떨어지는 공공차 훈련을 할 때는 젊은 많은 목사님으로서의 생명조차 내걸

어야 했다는 간증에 나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보다 앞장서서 훈련을 즐기며 감당하신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앞서 가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을 때 온 인류가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므로 고난을 통해 승리하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진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로만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회원들은 주님께서 지고가신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또한 말로만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련회가 끝난 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의 말씀은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 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이제 곧 몸이 오면 그 말씀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준비들을 할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드린다.

※ 이단 시리즈 3 ※

영지주의(Gnosticism)

정 현 민

(목사, 16교구·범조인전교회·도서장학회 지도)

— 차례 —

- | | | |
|-------------|---------------|----------|
| 1. 이단의 정의 | 3. 근·현대 이단 | (3) 천부교 |
| 2. 초대교회의 이단 | (1) 예로와 종인 | (4) 구원론 |
| (1) 에베소주의 | (2) 요한과 종인 | (5) 영성론 |
| (2) 영지주의 | (3) 안식교 | (6) 예언론 |
| (3) 가현설 | (4) 크리스찬 사이언스 | (7) 동방교 |
| (4) 아라우주의 | 4. 한국교의 이단 | (8) 세일교단 |
| (5) 사벨리안주의 | (1) 통일교 | (9) 장막성전 |
| | (2) 김기동 | |

5. 이단을 예방하는 길

영지주의는 초대 기독교시대인 1세기경에 다양하게 발전했던 여러 이단 사상적 학파들의 통칭적으로 불어는 이름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체계의 큰 특징은 영적 세계와 물질세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에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영지주의적 문헌들은 이집트에서 콥트어(Coptic)로 번역된 무라기 문헌에있는 거의 유일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지주의에 관한 지식의 대부분은 교부들의 문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교부들은 대체로 영지주의가 시몬 마구스(Simon Magus)와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원칙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지만(행 8장) 교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영지주의의 사상체계의 이원론이었는데 그들은 우주상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영적 세계와 물질세계로, 선과 악으로, 천성의 영역과 지극한 영역으로 대조시켜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와같은 이원론의 사상체계로 인해서 영지주의의 신론에서는 지존의 하나님과 지극한

신을 구분하였는데 후자의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지존의 하나님은 어떤 계시와도 상관없는 본성이며 이 세상으로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먼 곳에 떨어져 계신 본성이기 때문에 지존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한 신이며 유대인의 절대신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그들은 인간을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때에 천상의 지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 교부들이 영지주의와 맞서서 싸웠던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였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신론은 영적 세계와 소위 '이온'(Eon)으로 불리워지는 물질세계로 나누었는데 물질세계는 지존의 하나님이 최초의 이온을 형성하였고 이 세상을 창조한 지극한 신은 이온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최초의 이온들중 하나로부터 기원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입무는 물질세계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서 영적 세계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의 의하면 이런 구원은 천상의 지시(영지)로 인하여 가능하며 이 지식의 전수는 비밀형태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천

상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들과 같이 물질적 속한 자들은 이 지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서 영지주의는 기독교로부터 특징의 교리를 취하여 이를 자신들의 일반적 구원론에 이용했습니다. 한 예로써 영지주의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원의 지식을 가져오는 자로 언급할 때에만 그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성경적 의미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이온들로부터 유출된 영적 본질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교도도, 죽음도 당하지 않았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인함을 부인했던 가현론적 기독교를 주장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다고는 사상 대립에 육체의 부활도, 종말론도 부인했습니다.

이상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혼과 물질은 엄격히 구분하는 영지주의의 철저한 이원론은 그들이 행라사상과 가지는 관계를 만들려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인 주님이 인간이라는 구상을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신비주의적 사상체계로 변형시키고자 했으며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거부한 초대 교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영아부 교사들은 2월 15일 새친구 초청잔치를 위해 교회내의 영아(만 2세까지)들을 먼저 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대예배 1부부터 5부까지 각자 맡은 장소에서 아기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영아부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날 만난 친구들과 교사들은 영아부 집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회 시간 : 매주일 오전 8시 50분,

10시 50분

집회 장소 : 선교관 102호

▶ **유년부** / 릴레이 기도회 이워지는 유년부의 겨울 행사를 소개합니다. 유년부의 모든 교사들은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하나님의 이름을 제미고 배울 수 있는 겨울성경학교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 놓고 반별로 릴레이 기도를 할 때 동시에, 교사들은 전도 훈련을 병행 열심으로 학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과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틀에 걸친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행사에 참여한 성도님들 자녀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관심있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원주 동신원)

▶ **초등부** / 저희 초등부에서는 2월 23-24일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학교에 참석치 못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임시 교사를 기다립니다. 학부형 중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초등부 교육관 311호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초등교과 3학년, 4학년과 두고 있는 성도들 중에 초등부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녀를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초등부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울성경학교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미숙 동신원)

▶ **중등1부** /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겨울성경회를 갖습니다. '감추어진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안에 어떠한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는지 집중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사님들의 100% 참석과 학생들의 100% 참석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등1부는 이번 겨울성경회를 통해서 그 그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종일식과 배지교사라는 장례물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로 문

지거나 한다면 저녁 시간에는 100%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등1부 교사님들은 수요일 2부예배 후 기도회로 모이는 등 기도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송원아 동신원)

▶ **중등2부** / IMF 한파를 함께 이겨내는 의미에서 이번 겨울성경회는 많이 많이 절약하면서 학생들 회비를 거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약한 만큼 절약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중등2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중등3부** / 23-25일까지 교회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회를 갖습니다.

▶ **에바디부** / 오는 수화교실을 개강합니다. 개강예배는 오늘 오후 3시 교육관 102호에서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이라도 에바디부실(교육관 102호) 오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아교육부** /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지관 가나솔에서 겨울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의 회원들이 모두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게 될 이번 성경학교에 영아교육부 회원들뿐 아니라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탁아부** / 시청각 교육을 위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아교육학과 졸업생이나 졸업한 성도들 가운데 유능이나 동화 구연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의 많

은 참여를 바랍니다.

▶ **15교구** / 15교구 식구들이 청치기훈련 중 남나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두 잉태를 했다는군요. 이미 이미 무슨 그런 말들이 사건의 발단은 청치기훈련 중 쏟아진 은화로 굳어졌던 마음들이 기경되어 옥토비어 되었는데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있었노. 날마다 가을을 보고 가을 곡을 베친 모습을 바로 잡고 바로 잡다니 디더이 너도나도 ... 춘령의 젊은 자제세 주자들을 위한 기도의 산배로서, 21세기에 꽃피워질 예수 한국, 성도 한국, 성리 코리아를 이끌어갈 믿음의 결실(傑物)들을 잉태하여 기도하고 키우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 줄 신배가 되기를, 한 알의 씨아저는 밀알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여인처럼, 견디고 견디며 신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15교구 기도의 여권, 기도의 어머니들이여!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한수정 동신원)

2월 22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2부예배

임마누엘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 찬양대 / 지휘: 장기범, 반주: 김윤정
- 오케스트라 / 악장: 윤혜경
- 〈찬양곡목〉
- 나의 생명 드리니
- 악은 곡식 거둬 자가(찬 271장)
- Cross Medley - 오케스트라
- 주님은 세상의 빛

3부예배

할렐루야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 찬양대 / 지휘: 김철원, 반주: 조희영
- 오케스트라 / 악장: 김유정
- 〈찬양곡목〉
- 주 사랑하는 자(찬 249장) - 오케스트라
- 하늘은 말한다 주의 영광
- 주님의 마음을 받مان는 자(찬 507장) - 오케스트라
- 주 이름을 찬양함은

4부예배

이민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 찬양대 / 지휘: 이수철, 반주: 김남욱
- 오케스트라 / 악장: 오광호
- 〈찬양곡목〉
- 오 신실하신 주
- 내 영혼의 그윽한(찬 469장)
- 구주와 함께(찬 465장)
- 부드러운 주의 음성

5부예배

소프라노 이미리

성신여대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

원 졸업

서울레이디스 싱어즈

단원

파천시립여성합창단

성암발성 지도

청년부 찬양대 지휘자

〈찬양곡목〉

-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찬 468장)
- 이 세상 험하고(찬 197장)
- 거룩한 성



◆ 탐방 - 의료전도회 ◆

인술과 함께 복음 전파 사명 감당

매주일 오후 1-3시 교육관 204호에서 상담 및 진료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 204호에서는 10명 내지 20명의 성도들이 의료 상담이나 진료를 받고 있다. 바로 의료전도회(회장 손철 강로, 지도 박경환 목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의료전도회실에서는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사가 5-7명, 간호사가 4-5명이 돌아가면서 성도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른 곳에 대한 상담이나 진료이다. 많은 분들이 병을 치료하고 있는 줄 알거나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으나, 의료전도회가 전문의나 간호사가 모인 곳이라는 해도 전문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간단한 소화제와 같은 상비약을 준비하여 이른 성도들을 돕고 있다.

의료전도회는 또한 선교위원회와 협력하여 매달 한번씩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상담이나 진료를 하고 있다. 그밖에도 의료전도회 회원들은 비록 전문적인 치료는 해 줄 수 없지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아프지만 형상상 진료도 못받고 간단한 약조차 복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의료전도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한다.

의료전도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외부 진료도 하고 있다. 여름에는 농어촌으로 나가 주님을 전하며 의료 봉사 활동을 하거나 고아원, 양로원에도 찾아가며 무료 시술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 아픈 곳을 살펴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또한 해외로도 나가 의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95년에는 태국에서, 97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선교 활

동을 전개하였는데, 올해도 역시 해외 의료 선교 활동을 나갈 예정이다. 예년과 같이 지역에서 봉사할 팀과 같이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의료 활동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전도회에서는 함께 봉사할 의료인들과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사실 의료인들 중에는 평일에 도 환자들을 대면하며 함께 생활하다 보니 주일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꺼려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주일에도 시간을 내어 분들의 건강을 돌보고 또 여름에 나가는 의료 전도 활동에 동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아로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

의료전도회는 충현의 의료인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병원이거나 약국에서 밝은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면했으면 한다고 당부한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는 의사나 약에 의존하여 병이 낫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당부한다.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그들의 믿음으로 고쳐 주신 것처럼 성도들의 병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쳐 주실테니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충현의 성도들



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한다.

주일날 짧은 시간에 의료전도회가 운영되기 많은 성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현의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때문이 아닐까 하여 감사하게 나오기도 한다. 부득한 인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쓰실 인員들을 채워 주시리라 믿고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는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의료전도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 / 박주영 기자, 사진 / 이윤구 기자, 의료전도회)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한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골로소서 3:12)

발행처 : 대한예수교 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김은호 편집국장 : 조신근

남성도 구역모임 구역의 영적 부흥, 이제는 남자들도 함께 됩니다

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190여개 구역으로

금년 2월부터 남성도 구역모임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과거에도 남성도 구역모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양보로 후퇴하던 중 도중하차한 예들이 있었다. 그러나 급변한 남성도 구역모임은 가정과 구역의 영적 진보에는 남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핵심 사안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재각성과 이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구역모임은 교우만으로 여성도들만의 모임으로 고착화되어 왔고, 이것은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일이나 가정과 구역을 세우기는 일 등에 대하여 남녀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구역과 지역, 교구의 일꾼들은 이러한 현상의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적극 권의하게 되었고, 이것이 급변 남성도 구역모임의 실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지금 이 모임은 각 교구별 형태에 따라 모임의 횟수나 숫자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교구위원회에서는 월 2회의 모임을 권면하고 있으며, 모이는 요일이나 시간은 구역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교구위원회는 인식적으로 나타나는 교구별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남성도 구역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남성도들만의 모임에 대체로 만족해 하고 있으며, 이 모임을 통해 각자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마찰과 갈등의 고리들을 말씀 앞에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중현의 남성도들은 현실과 신앙의 갈등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토론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갈망해 오던 중, 이 남성도 구역모임을 통해 중보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을 소유하게 된 셈이다.

교구위원회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남성도 구역모임을 위한 성경공부교재집필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교재출간 전까지는 그동안 구역모임에서 사용해 온 구역공부를 재편집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남성도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들은 수성2부 예배 후 교구 목사들과 함께 구역모임을 위한 준비공부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온 성도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중현의 남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능력있게 세워서 갈 뿐 아니라, 이들의 영적 재충전을 통하여 중현의 모든 가정과 구역들이 더욱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특히 직장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가면서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위해 중보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98년도 제2차 성찬식 다음주일 15부예배시

올 한해 동안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한 성찬식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첫주일에 이어 다음 주일(3월 첫 주)에는 15부예배시간 중 제2차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특히 급변 성찬식에는 지난 주일에 세례와 입교, 개종을 통해 중현의 세례교인이 된 219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는 기쁨을 온 교우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찬식을 통해 중현의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서로 엮여져 한 몸된 교회를 확인하는 기쁨을 맛볼 뿐 아니라, 연초에 다짐했던 성실한 헌신의 결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

교역자 동정 염현일, 박인기 전도사 2월 17일 충신신대원 졸업

염현일 전도사(초동부 지도)와 박인기 전도사(예배대부 지도)가 3년간의 신학수업을 마치고 지난 2월 17일 충신신대원을 졸업했다. 이들은 앞으로 6월 경에 있을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목회 수업을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력하리라 하는 각오를 전했다. 우리 교회가 전국 일꾼을 기우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도록, 해당 부서의 교사와 학생들뿐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와 격려로 이를 지원해야 하겠다.

이번 기회에 고집시다 (3)

버려지는 주보와 인쇄물들

주일마다 교육관 각 방에는 바닥에 떨어져 밟히는 주보와 흩어진 각종 인쇄물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쓰레기통에는 구겨진 주보와 일회성 인쇄물들이 쌓인다. 한때 교회학교 몇 개 부서에서는 폐지 모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것도 요즘에는 한산하다. 물자절약에 대한 강도높은 강조에 비해서 우리들의 실천은 현저하게 뒤처지고 있다.

교회 인쇄실에서 매주 인쇄되는 종이는 16절 1만 여장, 9절 5-6천 장 이상이다. 주일마다 엄청난 양의 종이들이 인쇄되어 각 부서로 흩어진다. 그리고 이 많은 종인들이 일회용으로 쓰인 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이런저런 다시 쓰기'와 '폐휴지모아 보내기' 등에 마음을 기울여 실천해갈 책임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보 등을 간수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식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인쇄실에서는 인쇄물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월례보고서 등 자체 광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인쇄를 자제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성경학교 · 수련회 주간 은 교회의 기도 지원 질실

학생들의 불방학을 맞아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말까지 일주일 동안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집중된다.

지난 주말의 중대1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23, 24일 양일간은 영아부로부터 소년부에 이르는 모든 부서가 겨울성경학교를 열고, 중등2부와 3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각각 기도원과 교회에서 수련회를, 예배대부는 25일에서 27일까지 교회에서, 그리고 사랑부와 영아교육부는 각각 26일과 28일에도 교회에서 겨울성경학교를 실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은 중 · 고 · 대 · 청소년수련회가 기도원에서 진행된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새하기를 영적 갱신의 정

신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은 기도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장학생 신청 현황

지난 2월 18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한 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5명, 대학생이 104명, 일반대학원생이 15명, 신학대학원생이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신청이 미비된 예배대부 학생 소수가 이에 더 추가될 예정이다.

이들 장학생 신청자들은 개정된 도서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21일에 논문과 면접시험을 치렀으며, 26일부터 28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리는 중 · 고 · 대 · 청소년수련회에 참여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한다.

이들이 이 모든 일에 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가서 강해 ●

하나님의 심판 (2)

(이사야 13:12-16)

본 문은 6-11절에 이어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뽑아 바벨론을 멸망시킬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가 어떠합니까

(1) 사람이 회개해질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니”(12절)

‘정금’은 물론이고 ‘오빌의 순금’은 가장 귀한 금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2) 땅이 위치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멸할 이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며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13절)

땅이 자기의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첫째로, 통치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늘은 종이 축이 열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길 것을 의미(제6:6-14) 계절이 뜨거운 봄에 풀이 자라고(제후 3:10) 땅 것인데 네 가지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용암의 불, 국민이 바친 세금으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의 불, 또 공중의 번갯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불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남는 것이 없이 모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3) 사람들은 맹수에게 쫓기는 목자 없는 양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라”(14절)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맹수에게 쫓기는 노루와 같고 목자없는 양과 같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에게는 세 가지 면에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양은 약합니다. 두번째로, 양은 유급거리는데 양에게는 우유와 새우 만만 할 정도로 없고 물이 없을 만한 이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목자의 보호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둘째로, 양은 무지합니다. 양은 지혜가 모자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어디로 가야 그늘진 바위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있는 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면 이 꼴까지 그려서 해보면 서가시릴 정도로 험한 길에 빠지는 일이

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인도에 꼭 필요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니”(시 23:1-2)

생활력이 없는 양을 혼자 내버려 두면 여름에 풀이 잘 자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가을에는 마른풀을 먹고 겨울에는 눈밭에서 추위 떨며 올라가 결국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비축하였던 사료를 주어야 겨울에도 굶지 않고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목자없는 양과 같게 되니 비 내리는 날에는 갈 바를 잘라 양아에서 옮겨야 하고 눈 내리는 가을에는 와들와들 떨다가 얼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4) 만나는 자마다 모두가 원수일 것입니다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찔리리니”(15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입니다. 지주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네 원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를 들면 나무 동자에 붙어서 뿌리의 전액을 흡수하게 공급받는 가지는 비가 오는 것도 햇빛이 나는 것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사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원재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피었던 꽃은 시들고 열매가 떨어질 것이니 주인은 이 가지를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오면 해가 햇빛이 비치면 더욱 마르게 되니 해가 비추어도 저주되고 비가 와도 저주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햇빛이 쏘여도 복이고 비바람이 불어도 복입니다. 욕신이 잘 살아도 복이고 환난을 만나도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욕신이 또 살아도 화요, 욕신이 잘 살아도 저주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인생은 천사가 재계절을 하고 마귀가 비방을 하고 만물이 원망할 것이고 자신은 육신도 영혼도 저주받은 갈 곳 없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에게는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 어디에도 돌보아 줄 자 없고 전부가 원수입니다.

(5) 가문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여 아침을 잊었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였

바벨론이 심판받은 대표적인 죄는 악함과 교만과 잔인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른 악, 음란한 악, 거스르는 악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또한 교만도 끊어 버려야 합니다. 잔인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고 그 아내는 육을 당하리라”(16절)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어린아이들이 동정을 받지 못하고 바닷물에 매여 아침을 당하게 됩니다. 주인이 존경을 받으면 아내도 대접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의 아들이 비록 어리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쫓겨난 불쌍한 자식은 어디를 가도 대접받을 데가 없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쫓기나면 그집이 불쌍합니다. 사람이 고우면 그 집의 개도 굶고 사람이 미우면 그에게 속한 것은 집의 무엇이든 지 밟게 보입니다. 부모가 대접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도 천대를 당합니다.

“집은 노략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등가죽을 벗어서 별장을 웅장하게 지었으나 저주를 받는 날에 원수들이 도끼를 들고 와서 조각해 세운 그 좋은 기둥을 광채 썩어 넘어뜨릴 것이니 집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내는 육을 당하리라” 남편이 죽임을 당하는 날에 사랑하는 아내는 더러운 무리들에게 영욕이 유린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심판의 원인이 죄를 미워해 악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은 대표적인 죄는 악함과 교만과 잔인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른 악, 음란한 악, 거스르는 악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또한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인물이 많다.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세력이 높다. 나는 기술이 능하다’ 등등의 교만도 끊어 버려야 합니다. 잔인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

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우리는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이 땅에는 사람이 회개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이 땅에는 종교지도자들이 없고 백성들은 목자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악마는 조종하고 천사는 몽둥이로 때리고 사람들은 천대하고 천지에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와 동행해 줄 자는 없습니다. 땅에서부터 지옥이고 영원히 저주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만 버림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 때에 외롭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고, 세상이 나를 버릴 때에 무섭다고 세상이 무릎 꿇지 말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한 받으면 세상이 나를 버려도 천사가 와서 붙들어 주고 악마는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 때에 무섭다고 더 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세상은 나를 버렸어도 천사는 와서 나를 붙들고 악마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사람들은 존경할 마음이 생깁니다.

“저것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절개가 있어” 천대하고 때리면서도 속으로서는 존경합니다. 원수에게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명예와 평안과 상급이 아울러 찾아옵니다. 그러니 육신도 천국에도 영혼도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훈을 배워서 일생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

● 김성관 목사의 1월 18일 5부예배 설교 ●



갓난아이 (베드로전서 2:1-3)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갓난아이'입니다. 2장 1절을 가만히 잘 보면,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 하고 나옵니다. 항상 '그러므로'에는 꼭 이유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입니까?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는 거듭난 자라"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고등교육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무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죽도록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앞て 놓고서 선생님이 대해서 말합니다. 갓난아이는 죽음이 아니라 태어남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거듭나야 썩어질 씨, 세상에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시련을 받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썩습니다. 사망하던 사람도 숨이 끊기면 1분도 안되어 자갈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어집니다. 여기에 2장 1절에 사탄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담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들이면, 믿음의 고백 순례에 여러분들은 썩어질 씨로 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습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봤습니다. 크도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모세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많은 아يا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실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 선생님이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듭난 것은 인격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도덕으로 훌륭한 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히 살아 영원히 옮겨진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하고 이해를 통해 내 지식으로 남은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해와 경험과 체험과 지식과 철학을 넘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데 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꾀술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이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꾀술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권과 속이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권과 속이 다르며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 속에는 권과 속이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이제의 외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가 아프도록 시기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하십니다. 비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의에 찬 중상 모략입니다. 이것은 경쟁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를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이상의 다스리지 약행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니 순전케 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갓난아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었으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갓난아이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어린이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기뻐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정말로 간절합니다. 조금만 늦게 귀도 안달이고, 온도가 조금만 안달아도 땀뻘거리면서 읊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도전할 시기를 "너희가 거듭났으니 거듭났으면 갓난아이가들이니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버렸던 무배로운 산돌 곧 하나님이 선택하고 귀

하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기간 중,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좇았답니다. 벡새타 광야에서는 남자들만 5천명이 따랐습니다. 전제적으로도 아마도 수만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힐 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쓴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 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네 세상이 버린 산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귀한 돌에게 어린이들이 들어어 가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입니다. 건축의 전문자가 버렸던 일만나 쓸데가 없는 돌입니까? 그런데, 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제일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메시야가 온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야를 가르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는 데에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도덕을 찾아와 인간의 가장 높은 철학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열심히 젖을 빨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갓난아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일생 동안 세상의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슴 속에게 적셔질 때나 인간들이 볼 때 아무런 가치와 없고 인간들이 볼 때 버려진 갈진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산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입니다. 그것은 산돌입니다.

2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갓난아이가처럼 사모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갑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9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썩어질 것을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흠을 얻으리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으로 된 우리들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흠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 줄 길개공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어떠한 죄인된 인간이라도 십자가에 가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은총이 그에게 내려집니다.

이때에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거듭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십자가로 하나님으로 묶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부활로 이끄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세 피조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화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진동하시면서 우선 장수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버린 인간들이 우는 장소입니다. 회개의 장소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이 십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안에 거 거뵈셨느니라, 갓난아이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 베드로 선생님의 권면입니다. 아멘. **▲**

✧ 선교정보 나누기 - 1

“주님의 지혜로
함께 선교합니다”

— 나이지리아 한 눈에 보기 —

먼저, 나이지리아의 자연환경을 보면 면적은 942,999km²이고 사막이 북부를 잠식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나, 지하자원은 풍부합니다(나이지리아는 세계 7위의 산유국이고 국가 경제의 8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이 미개발 상태이고, 게다가 국가 지도자들의 무능한 경영으로 인해 여전히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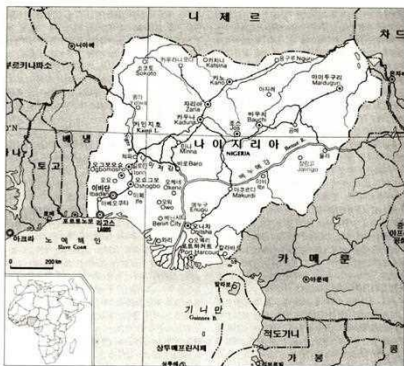
인구는 1995년을 기준으로 1억명이 좀 넘는데, 이들은 426개의 종족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문자해독률은 50% 정도에 불과하나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이 나이지리아에서 주도한 노예매매의 영향입니다. 영국의 정복에

전체적으로 나이지리아를 볼 때, 북부에는 목축을 하는 회교도(모슬렘: 전 인구의 40% 정도)들이 몰려 있고, 남부에는 농사를 짓는 기독교도(개신교는 26% 정도)들이 모여 있습니다(참고로, 전통종교는 약 10%, 카톨릭은 13% 정도). 이 두 종교간에는 정치적 싸움과 긴장이 계속되어 왔지만, 정부는 회교도들을 지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압박을 외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북부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회교도들에 의한 폭동과 약탈 등으로 희생되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북부의 회교도들은 남부에 있는 회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남부의 통제권을 장악하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이 삶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적지 않은 숫자가 부유계층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정작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하는 서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교회에는 소망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 중 유례없는 선교사 파송 국가입니다. 현재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현재는 300개 이상의 캠퍼스에 4만여명의 기독교 학생들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에 따라 캠퍼스에서는 회교도 학생들까지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의 각계 각층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교회들에서는 24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교회의 목표는 2000년까지 인구의 75%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이들에게는 기독교 문서들이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지만, 인쇄계가 비싸고 종이값도 비싸서 이 문서사업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의 목자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참고자료: 세계기도정보, 조이출판사).



따라 나이지리아의 현대사는 유혈과 투쟁, 정치적 혼돈과 내전으로 얼룩져 있어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60년 이래까지도, 이 나라에는 지난 20년간 여섯 차례에 걸친 쿠데타가 있었고, 자유와 민주적인 선거를 향한 투쟁은 모슬렘 혁명정부에 의해서 끊임없이 짓밟혀 왔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 어느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차 끊임없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압박과 부딪힘 외에도 나이지리아의 영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위험한 것들은 많은 지식인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기독교와 전통미신이 혼합된 토착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영적 혼돈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이지리아의

나이지리아를 위한 기도제목

1. 교단과 단체를 이끌어갈 나이지리아인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 성경을 잘 이해하고 제자훈련에 유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의 능력에 충만한 지도자들이 배가되도록 기도합니다.
3. 복음을 바르게 전수하고 진리예대한 실천력이 있는 목회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건실한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아픔담겨 진행되고 있는 캠퍼스 복음화 사업이 계속해서 힘있게 진행되고,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젊은이들이 자국민 아니라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기까지 자라가도록 이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부탁드립니다.
5.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회교도들과의 마찰을 복음적으로 잘 이겨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말씀의 생명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일에 나이지리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단기선교를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에게 *

우리의 단기 선교

정 성 기

(전도사, 선교위원회 부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지고 보면 내가 찾고 해결하고자 했던 것들은 ‘얼마나 잘 먹을 수 있을까’ 혹은 ‘얼마나 잘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살바세 불면 증상은 생활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이나 영접하고 난 후나 매일반인 것은 분명하다. 한가지 다른 점은 소유의식을 버리고 선한 관리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대한다는 것이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나의 장인께서는 언제나 호주저택에 대해서 물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십시오’라고

늘 같은 말로 대답을 드린다. 정말 그런가? 신앙의 문제이다.

98년 단기선교에 대한 총헌교회의 대학부와 청년부에 속한 젊은이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복음에 대한 설렘이 있는 가슴들과 깊은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광량 뛰는 젊은 심장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오늘날의 그들을 본다.

그런데 왜일까? 지난해 그토록 열렬했던 젊은이들의 선교공방이 쓸쓸한 기억으로 지금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신앙의 문제이다. 원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이다. 기본적으로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군대의 전사이

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부여하신 신분이요 사명의 요체이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성경해야 한다. 언제나 의무 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요구하신다. 두 마음을 품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는 거북함은 어디에도 없다. 거북함이 없는 군대는, 성경결함이 없는 군대는 영이 서지 않는다. 반드시 패하고 말한다. 성도의 피와 땀이 서려 있고 성도의 귀한 세월이 담긴 군자금을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치르려 한다. 98년 단기선교에 지원입대하는 젊은 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와 ‘무엇을 입을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신앙의 척도일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총사령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선교사 자녀에게
책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현지에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일에 적극 동참하셔서 보낸 자들로서의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종류: 종교도량생활 양서 (신학교재 포함)
- 접수: 선교위원회 사무실 (선교관 406호)